



02호
2024.05

CEO Report

기후변화와 건강 형평성

김경선·홍보배

CEO Report

CEO Report는 보험산업과 관련된 현안과제를 집중 분석하여 보험회사 최고경영자의 의사결정에 도움을 드리고자 작성되었습니다.

기후변화는 건강에 악영향을 미칠 뿐만 아니라, 계층별 건강 격차를 심화시킬 수 있다는 점에서 최근 이슈가 되고 있음. 모든 국민에게 건강의 최고 수준과 평등성을 보장하는 건강권(Right to Health)은 생존의 기초로서 중요한 국민의 기본 권리이므로, 기후변화에 따른 건강 위험에 대응하여 건강 불평등을 완화하고 건강권을 실현하는 것은 국가의 중요한 과제임

모든 사람이 최적의 건강과 웰빙에 필요한 조건·자원을 갖는 건강 형평성은 사회·경제·물리적 환경 요소에 광범위하게 영향을 받으며, 이러한 요소 중 하나라도 부족하게 되면 취약계층의 건강 위험 및 건강 불평등이 악화될 수 있음. 기후변화는 소외된 지역사회에 불균형적으로 영향을 주는데, 특히 의료 자원에 대한 장·단기적 접근성을 감소시킴에 따라 취약계층의 건강 불평등이 심화되는 경향을 보임

우리나라에서도 기후변화에 따른 건강 위험이 취약계층 및 고령 인구 비중이 높은 지역사회에서 불균형적으로 큰 것으로 나타남. 인프라 및 재정·복지 수준이 낮은 지역사회에서 폭염 사망 위험이 높고, 빈곤층과 기반 시설이 부족한 특정 지역이 풍수해 위험에 더 취약함. 코로나19와 같은 감염병은 신체건강뿐만 아니라 정신건강 영역에서도 소득계층별 건강 불평등을 심화시키는 것으로 확인됨

건강 형평성을 개선하기 위해서 정부는 연구기관, 시민단체, 보험회사 등과 협력하여 중·장기적인 관점에서 정교한 기후 관련 보건정책을 마련할 필요가 있음. 정부는 기후변화에 취약한 소외계층의 생활기반시설을 개선하고, 기후변화 저감 노력을 통해 건강 위험을 최소화하기 위해 노력해야 함. 또한 국민건강보험에서 기후변화에 영향을 많이 받는 질병에 대한 보장을 확대함으로써 취약계층의 의료서비스 접근성을 높일 수 있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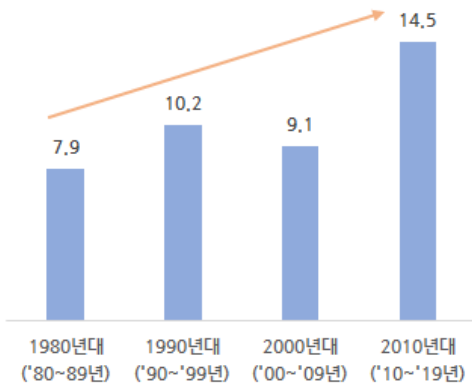
보험회사는 건강 불평등을 완화하기 위해 건강 증진 프로그램을 활용하여 취약계층에게 건강 관리 교육 및 서비스 등을 제공하고, 자연재해 발생 시 건강 위험 알리를 보낼 필요가 있음. 또한 기후 위험에 대한 대비가 부족한 저소득층을 위해 소액보험 상품을 공급함으로써 포용적 보험의 역할을 강화할 필요가 있음. 보험회사는 기후 위험과 관련하여 전체 건강 가치사슬을 따라 고객에게 부가서비스를 제공함으로써 수익 흐름을 다양화할 수 있으며, 고객의 위험 감소 노력을 유도하기 위한 인센티브 제공 방안을 고민해 볼 수 있음

I

검토 배경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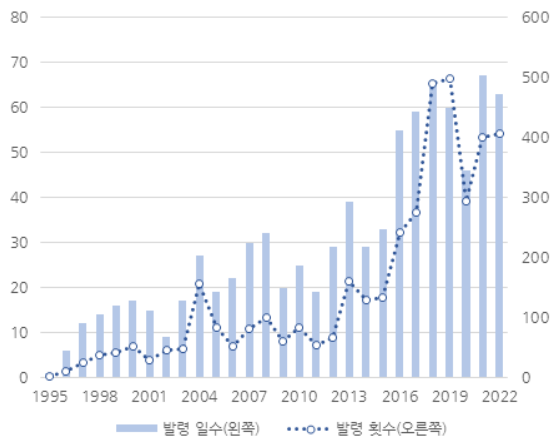
- 최근 기온 및 폭염일수가 증가하고, 대기오염이 악화되는 등 기후가 빠르게 변화하고 있음
 - 우리나라의 전반적인 기온과 폭염 일수는 상승 추세를 보이고, 이러한 추세는 더욱 악화될 것으로 예상됨
 - 1980년대 연평균 폭염 일수는 7.9일이었다, 연대별로 증가 추세를 보이면서 2010년대는 14.5일을 기록함(그림 I-1) 참조)
 - 2022년 여름철 평균 해수면 온도(23.2℃)는 관측(1997~2022년) 이래 세 번째로 높았음
 - 우리나라의 21세기 후반기(2081~2100년) 연평균 기온은 온실가스 배출 정도에 따라 현재(2000~2019년) 대비 2.3~6.3℃ 상승할 것으로 전망됨(기상청 2023)
 - 이산화탄소와 메탄 등 온실가스가 증가함에 따라 미세먼지, 오존 등 대기오염 지수가 악화되고 있음
 - 우리나라 오존주의보 발령 일수 및 발령 횟수는 가파른 증가추세를 보임(그림 I-2) 참조)

〈그림 I-1〉 우리나라 연대별 폭염 일수 추이



주: 폭염 일수는 일 최고기온이 33℃ 이상인 날의 수임
자료: 관계부처 합동 보도자료(2023. 5), “2023년 폭염 종합대책”

〈그림 I-2〉 우리나라 오존주의보 발령 일수 및 발령 횟수



자료: 에어코리아

- 전 세계적으로 기후변화는 기온 상승, 대기오염 증가, 빈번한 기상이변과 같은 요인들로 인해 사람들의

건강과 안전에 위협을 가하고 있음(Fantini et al. 2024)(〈그림 I-3〉 참조)

- 대기오염 및 극한 기온(폭염 또는 한파)은 심장 관련 질환에 영향을 미칠 수 있음
- 대기오염, 폭염, 풍수해 등은 천식과 같은 호흡기 질환에 영향을 미치고, 이는 산불 등에 따른 연기로 인해 더욱 악화되고 있음
- 기후변화는 인간에게 질병을 전염시키는 매개체(모기, 벼룩)의 수와 서식지를 확대하고, 수인성 질병이나 식품 매개 병원균의 확산을 증가시키는 것으로 알려짐
- 온도 상승이나 자연재해의 경험은 자살률을 증가시키고 불안, 우울증을 야기할 수 있으며, 심지어 기후 불안정적으로 인한 우울장애(생태불안; Ecoanxiety)를 유발할 수 있음

〈그림 I-3〉 기후변화의 건강에 대한 영향

	대기오염	극한기온 및 강수	자연재해	식수·식량 공급부족	생태환경 변화
심장관련질환	↗	↗	○	~	○
호흡기질환	↗	↗	○	○	○
매개 감염병	○	○	~	~	↗
심각한 부상	○	○	↗	○	○
정신질환	○	↗	↗	~	○
영양실조	○	○	○	↗	○
위장/수인성 관련질환	○	○	↗	↗	○
	↗ 높음	~ 다소 높음	○ 제한적·낮음		

자료: Fantini et al.(2024)

○ 건강권(Right to Health)은 생존의 기초로서 매우 중요한 국민의 기본 권리이므로, 기후변화에 따른 건강 위협에 대응하여 건강권을 실현하는 것은 국가의 중요한 과제임

- 건강권은 신체적·정신적 건강의 최고 수준에 대한 권리로, 모든 인간에게 건강에 대한 무차별(Non-discrimination)과 동등한 대우를 보장하는 것을 포함하는 개념임(WHO 2023. 12. 1)
- 기후변화는 건강에 악영향을 미칠 뿐만 아니라, 계층별 건강 격차(건강 불평등)를 심화시킬 수 있다는 점에서 최근 이슈가 되고 있음

- 기후변화에 대응하여 건강권을 점진적으로 실현한다는 것은 기후변화에 따른 건강 불평등을 체계적으로 확인하고 제거하는 것을 의미함
- 본고에서는 기후변화가 건강 불평등에 미치는 영향을 살펴보고 건강 형평성을 제고하기 위한 방안을 제안하고자 함
 - 국내·외 사례를 통해 기후변화가 건강에 미치는 영향에 계층별 차이가 있는지를 점검해 봄
 - 기후변화에 따른 건강 불평등을 완화하기 위한 정부의 정책 방향과 보험산업의 대응책을 제안함

II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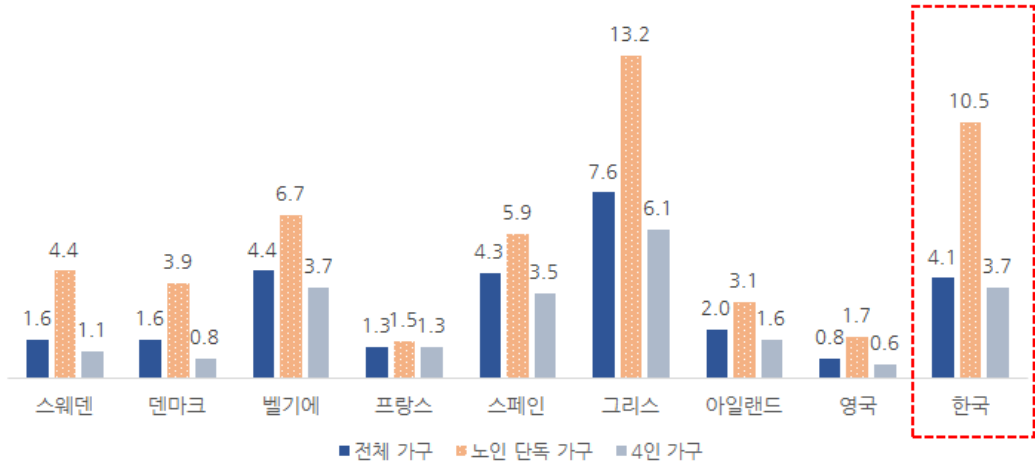
기후변화에 따른 건강 형평성

1. 건강 형평성

- 건강 형평성(Health Equity)은 모든 사람이 그들의 최적 건강상태에 도달할 수 있을 때 달성됨(WHO, “Health Equity”)
 - 건강 형평성이란 모든 사람이 최적의 건강과 웰빙(Well-being)에 필요한 조건과 자원 등을 갖고 있는 것을 말하며, 계층별로 이러한 조건에 차이가 존재하게 되면 건강 수준에서 불평등이 발생할 수 있음
- 건강 형평성의 결정요인은 정치·경제·물리·사회적 환경의 광범위한 요소를 포함하고 있으며, 이러한 요소 중 하나라도 부족할 경우 취약계층의 건강 위험 및 건강 불평등이 악화될 수 있음(WHO, “Environment, Climate Change and Health”)
 - 도시의 정치·경제적 환경에는 고용, 보건의료 서비스, 교육, 성평등과 같은 요소가 포함됨
 - 물리적 환경에는 도시의 자연적 측면과 인공적 측면이 포함되며, 건강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으로 도시의 지리 및 기후, 주거 조건, 깨끗한 물에 대한 접근성, 교통 시스템 및 대기질 등을 들 수 있음
 - 사회적 취약계층은 자연·인공적 위험(예: 홍수 범람원, 화학 공장, 폐기물 처리장)에 가까운 지역이나 교통 서비스가 열악한 지역, 위생적이지 못한 지역에 주거할 가능성이 있음
 - 사회적 환경에는 지역사회 구성원의 나이 또는 성별 균형, 이주자, 실업자, 기타 사회적 취약계층의 비율 및 기타 문화적 요인이 포함됨
- 취약계층은 경제적 부담 등으로 인해 필요한 수준의 의료서비스를 이용하지 못함에 따라 건강 불평등 문제가 더욱 심화될 수 있음
 - 우리나라에서 건강상태를 감안한 의료 이용량은 저소득층이 고소득층보다 낮은 것으로 나타나며, 이는 의료 이용에서 소득 계층 간 불평등이 존재함을 시사함(김도영 2012)
 - 우리나라 노인 가구의 소득 대비 의료비 부담은 유럽 국가에 비해 높고, 소득 분위별 의료비 부담의 격차도 크게 나타남(김기태 2022)
 - 우리나라의 소득 대비 의료비 비율은 전체 가구의 경우 유럽 국가들과 상대적으로 비슷하나 노인 단독

가구 기준으로는 높은 양상을 보여, 취약계층의 의료비 부담이 큰 것을 알 수 있음(〈그림 II-1〉 참조)

〈그림 II-1〉 소득 대비 의료비 비율 비교



주: 2015년 기준임(단, 영국의 경우 2010년 기준임)

자료: 유럽 8개국: Eurostat(n.d.), Household Budget Survey [HBS], raw data; 한국: 통계청(2015), 원자료, 김기태(2022) 재인용함

- 건강 형평성의 결정요인은 특히 소득 수준과 연계되어 있는데, 이러한 요소들과 상호작용하여 건강 형평성에 영향을 미치는 다른 요인으로는 기후변화를 들 수 있음
 - 저소득층과 취약계층 비중이 높은 지역사회는 기후변화 위험에 더 많이 노출되고, 이러한 위험으로부터 복구할 수 있는 능력과 자원이 적은 경우가 많음

2. 건강 불평등을 심화시키는 기후변화

- 기후변화는 소외된 지역사회에 불균형적으로 영향을 주는데, 특히 의료 자원에 대한 장·단기적 접근성을 감소시킴에 따라 건강 불평등이 심화되는 경향을 보임
 - 기후변화는 모든 인류의 건강에 위협이 되지만, 특히 소수 인종, 저소득층 등 소외계층에게는 기존에 존재하던 근본적인 불평등을 더욱 악화시킬 수 있다는 점에서 중요한 문제임(Hill et al. 2023)
 - 소외계층은 환경적 위험에 노출되는 정도가 높을 뿐만 아니라 건강·경제·사회적 자원에 대한 접근성이 상대적으로 낮기 때문에, 이는 단순한 환경문제가 아닌 사회적인 문제로 접근할 필요성이 있음
 - 기후변화로 인한 가장 심각한 피해는 기후변화의 영향에 대한 대비 및 복구 능력이 부족한 소외된 지역사회에 불균형적으로 집중되어 있음(EPA 2021. 9. 2)

- 소수 인종 등 취약계층은 기온 변화와 대기오염으로 인한 질병·사망률이 가장 많이 증가할 것으로 예상되는 지역에 거주할 가능성이 높음
- 히스패닉·라틴계 사람들은 건설, 농업 등 야외작업 노동 참여가 높음에 따라 지구 온난화로 인해 기온이 2°C 높아질 경우, 열 관련 질병으로 사망할 가능성이 3배 이상 높음
- 기후변화는 의료 자원에 대한 장·단기적 접근성을 떨어뜨림에 따라, 이미 건강상태가 좋지 않은 취약계층의 건강 불평등을 심화시킬 수 있음
 - 홍수, 산불 등의 기후 재난은 의료 공급망의 붕괴뿐만 아니라 병원, 교통 시스템 등 의료 인프라를 손상시켜 낙후된 지역에 거주하는 취약계층의 의료 자원에 대한 단기적 접근성을 떨어뜨릴 수 있음
 - 기후변화로 인한 건강 악화는 의료 수요를 증가시켜 의료시스템에 부담으로 작용함에 따라 취약계층의 필요 의료 수요를 공급이 따라가지 못해 의료 자원에 대한 장기적 접근성이 떨어질 수 있음

○ 우리나라에서도 기후변화에 따른 건강 위험이 저소득 취약계층 및 고령 인구 비중이 높은 지역사회에서 불균형적으로 큰 것으로 나타남

- 폭염 사망 위험은 사회·경제·환경적 취약성이 높은 지역사회에서 더 높게 나타나고, 연령·성비·직업군별 불균형이 존재함
 - 저소득 가구는 단열 성능이 좋지 않고 에어컨이 없는 열악한 주거 환경에 있거나, 에어컨이 있더라도 전기요금 부담으로 에어컨을 사용하기 어려운 경우가 많음
 - 국내 폭염 사망자를 살펴보면 인구구조에 따른 노령 취약계층 비율이 높은 지역일수록, 인프라, 재정 및 복지 수준, 녹지 비율이 낮은 지역일수록 최소사망온도(사망자가 가장 적을 때의 온도)가 낮았음(정지훈 외 2014)
 - 국내 온열질환자는 남성이 더 많고, 체온 조절 기능이 취약한 고령자일수록, 비기술육체 노동자, 일용직, 건설업 노동자 등이 포함된 직업군일수록 일사병 관련 사망 위험이 높았음(김수란·정태성 2023; 이완형 외 2019)
- 풍수해(호우·태풍)로 인한 피해는 빈곤층, 특정 지역 등 기반 시설이 부족한 지역에서 더 취약함
 - 특히 서울과 같이 주거비가 높은 지역에서 저소득층은 침수 위험을 감수하더라도 저렴한 반지하주택을 선택하는 경우가 많음

○ 코로나19와 같은 감염병은 신체건강뿐만 아니라 정신건강 영역에서도 불평등을 악화시키는 것으로 나타남

- 열악한 환경에서 일하는 경제적 취약계층과 대기오염에 더 많이 노출되는 저소득 지역사회는 코로나19 팬데믹 상황에서 건강 불평등이 심화되는 모습을 보임

- 콜센터, 택배물류센터 등 밀집 시설에서 일하는 노동자는 높은 집단감염 위험에 노출되었으며, 자가 격리나 재택치료가 불가능한 노숙인, 아파도 쉴 수 없는 불안정 노동자는 감염병 대응 과정에서 불평등을 겪었음(김동진 외 2022)
- 코로나19는 대기오염에 대한 노출과 바이러스로 인한 사망 간 연관성으로 인해 기존의 건강 불평등을 더욱 악화시켰음(Wu et al. 2020)
- ‘코로나19 국민 정신건강 실태조사’를 분석한 결과 개인의 사회경제적 격차, 특히 소득격차에 따른 정신건강 불평등이 발생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남(이은환 2022)
- 기존에도 사회경제적 지위에 따른 건강 불평등이 정신건강의 영역에서도 발생하였으나, 코로나19라는 전염병 발생 이후 이러한 격차가 더욱 커진 것으로 확인됨

III

건강 형평성 제고 방안

1. 정부 정책 방향

○ 해외 주요국에서는 기후변화로 인한 건강 불평등 악화 문제에 대하여 정책 입안자 및 규제 기관의 관심이 높아지고 있음

- 2021년 1월 미국의 바이든 대통령은 국내외 기후 위기 대처에 관한 행정 명령을 발표하며, 기후 위기를 해결하기 위한 정부 차원의 대응 방안이 필요함을 강조하였음
 - 보건복지부(HHS)는 기후변화와 건강 형평성을 다루기 위해 기후변화 및 건강 평등 사무국(Office of Climate Change and Health Equity; OCCHE) 설립을 포함한 기후 행동 계획을 제정하였음
- 2023년 7월 바이든 행정부는 폭염에 대한 대응 및 회복력 강화를 위해 취한 다양한 조치를 발표하고, 기후 위험과 관련한 명확한 정보를 제공하기 위해 지역사회 파트너와 협력하고 있음을 밝힘(The White House 2023. 7. 11)
 - 2022년 바이든 행정부는 지역사회 정책입안자에게 폭염 관련 정보를 제공하는 웹사이트 Heat.gov를 출시하고, 기후 전망, 폭염 대비 방법, Bipartisan Infrastructure Law¹⁾와 Inflation Reduction Act²⁾를 활용하여 폭염에 취약한 소외된 지역사회를 지원하는 방법 등에 대한 정보를 제공함
 - 미국 보건복지부(HHS)는 저소득 가정 에너지 지원 프로그램(LIHEAP)에 2022년에만 38억 5천만 달러를 투입하고, 저소득 가구의 냉방 비용 절감 및 에어컨 구매 등을 지원함
- 미국 환경보호청(EPA)은 워싱턴 대학, 알래스카 대학 및 아이오와 주립대학에 390만 달러 이상의 보조금을 지원하고 기후 위험에 취약한 계층에 대한 지역 기반 연구를 추진하고 있음(EPA 2023. 2. 27)
 - EPA는 지역 기반 연구를 통해 기후변화가 물 관련 인프라, 수질 및 지역 취약계층에 미치는 영향을 파악하고 알래스카 원주민 지역사회가 기후변화에 적응할 수 있는 역량을 구축하고자 함
- 호주의 시드니 지역보건청은 팬데믹이 건강 형평성에 미친 영향을 체계적으로 분석하는 형평성 중심 건강영향평가를 수행하였음(윤강재 2022)

1) Bipartisan Infrastructure Law는 기후변화의 영향으로부터 지역사회를 보호하기 위해 청정에너지 인프라에 대한 투자를 지원함(<https://www.whitehouse.gov/build/guidebook/>)

2) 미국은 탄소중립(Net Zero)을 추구하기 위해 2022년 8월 Inflation Reduction Act(IRA)를 통과시킴

- 건강영향평가의 목적은 불안정한 주거 환경에 있거나 가정폭력에 노출된 사람들 등 팬데믹에 취약한 계층에게 코로나19의 영향이 불균형적으로 컸는지를 살펴보기 위함임
- 지역보건청은 건강영향평가를 통해 향후 발생할 수 있는 팬데믹 상황에서 취약계층을 보호할 수 있는 조치 및 전략을 사전에 마련하고자 함

○ 건강 형평성을 개선하기 위해서는 범정부 차원의 중·장기 대책을 마련해야 하며, 취약계층의 생활기반시설을 개선하는 한편 기후변화 저감 노력을 통해 건강 위험을 최소화하는 노력이 요구됨

- 우리나라 정부는 2022년 폭염종합대책을 통해 폭염 대비 피해저감 및 개선대책을 마련하였으나, 미래 폭염 재난에 대한 중·장기적인 대책 마련이 필요하다는 평가를 받음(관계부처 합동 보도자료(2023. 5), “2023년 폭염 종합대책”)
 - 지자체는 폭염 피해를 줄이기 위해 실내 무더위쉼터를 지정·운영하였으며, 폭염특보 발효 시 논밭 작업자에게 가두방송(街頭放送)을 하고 야외근로자를 위한 온열질환 자가진단 체크리스트를 도입하였음
 - 그러나 피해 예방 중심의 단기적 대응에서 더 나아가 기후변화 관련 연구를 통한 정교한 대책 마련 및 취약계층에 대한 정책 사각지대 해소가 필요한 시점임
- 정부는 기후 및 보건 전문가를 육성하여 기후변화에 대처하는 장기적인 역량을 구축해 나가야 하며, 건강 불평등을 효과적으로 완화하기 위한 정책 의사결정을 내릴 필요가 있음
 - 정부는 건강 형평성이 반영된 지역사회 공중보건 성과지표를 개발하는 등 기후변화에 대한 고려사항을 공중보건 정책에 포함하도록 제도화할 수 있음
- 지자체단체는 취약계층·지역을 대상으로 기후변화에 따른 피해를 줄이기 위하여 보건 서비스 제공 및 인프라 구축을 지원할 수 있음
 - 열악한 주거 환경에 놓여 있는 저소득층, 노숙인 등이 폭염 시 쉴 수 있는 무더위쉼터를 마련하고, 독거노인 등 폭염 취약계층에 대한 모니터링 및 돌봄서비스 지원이 필요함
 - 건강 관리 자원 및 접근성이 부족한 취약 지역에 병원, 공중보건 시설을 확충하고, 기후 관련 비상사태에 대한 대비를 강화할 필요가 있음
- 한편 기후변화에 따른 건강 위험에 대응하기 위한 가장 근본적인 해결책은 기후변화를 줄이려는 노력을 통해 이로 인한 건강 피해를 최소화하는 것임
 - 정부는 기후변화를 저감하기 위하여 온실가스 배출을 줄이고, 건강하고 지속가능한 지역사회를 형성하는 도시계획, 토지 이용, 에너지 정책 등을 추진하여야 함³⁾

³⁾ 예를 들어 정부는 신재생에너지, 친환경 모빌리티, 대기오염 관리 시설 설치 공장 등 기후위험 감축 산업 분야에 정책금융을 지원하고, 화석 연료 산업에서 녹색 일자리로 노동자의 직업 전환을 유도할 수 있음

- 사회보장제도 내에서 보편적 건강 보장(Universal Health Coverage)을 실현함으로써 취약계층의 의료서비스 접근성을 높일 필요가 있음
 - 모든 국민이 과도한 비용 부담 없이 필요한 의료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도록 기후변화에 영향을 많이 받는 질병에 대한 국민건강보험의 보장 확대를 고려해 볼 수 있음
 - 소득재분배 기능을 강조하는 국민건강보험에서 보장성을 확대하는 경우, 특히 취약계층의 경제적 의료서비스 접근성을 높임으로써 건강 불평등을 축소할 수 있음

2. 보험회사의 대응 방향

- 보험회사는 지역자치단체, 연구 기관 등과 협력하여 건강 관련 보건 정책 마련에 도움을 줄 수 있으며, 취약계층을 위한 보험 및 건강 증진 서비스를 제공할 필요가 있음
 - 건강시스템 및 정책을 위한 EU 관측소(European Observatory on Health Systems and Policies)는 정책 입안자에게 건강 관련 문제에 대한 권장 사항을 제공하기 위해 보험산업과 협력하고 있음
 - 보험회사는 야외 노동자, 독거노인 등 기후 위험에 취약한 소외계층을 대상으로 맞춤형 보험상품을 제공할 필요가 있음
 - 영국 보험회사 Aspen은 건설업 종사자의 정신건강을 보장하는 보험을 출시한 바 있으며(Insurance Times(2023. 11. 14), “Aspen to support mental health in construction industry with ‘first of its kind’ London market product”), 이와 유사하게 국내 보험회사도 기후 위험에 취약한 특정 직업군을 대상으로 맞춤형 보험상품을 제공할 수 있음
 - 우리나라 일부 지역자치단체에서는 시민안전보험을 통해 온열질환 진단비를 지급하고 있으나, 보험회사와 협력하여 취약계층 대상으로 보장을 확대하고 보험료 지원을 통해 보험 가입을 유도할 필요가 있음
 - 보험회사는 지역자치단체, 연구 기관과의 협약을 통해 데이터 및 IT기술 기반으로 취약계층을 위한 건강 증진 서비스를 개발·제공할 수 있음
 - KB손해보험은 인공지능기술 개발 전문사 아크릴과 업무협약을 맺고 지역사회 취약계층의 건강 증진 서비스 제공을 위한 공동연구를 진행함(한국금융(2023. 2. 22), “KB손보-아크릴, 취약계층 건강증진 서비스 MOU”)
 - 보험회사는 지역자치단체와 협력하여 소외계층에게 건강관리용 스마트기기를 보급하고, 건강 증진 프로그램을 활용하여 건강 관리 교육 및 기후 재난 발생 시 건강 위험 알리를 제공할 수 있음

○ 보험회사는 기후 위험에 대한 대비가 부족한 저소득층을 위해 소액보험상품을 제공함으로써 포용적 보험의 역할을 강화할 필요가 있음

- 국내 보험회사는 서민금융진흥원과 협업하여 금융소외계층을 대상으로 보장성 소액보험 가입을 지원하고 있으나, 그 성과가 뚜렷하다고 보기 어렵고 관련 시장도 활성화되어 있지 않음(석승훈·홍지민 2022)
 - 보험회사는 공익사업 형태의 단기적인 보험료 지원이 아니라, 다양한 소액보험상품을 개발·제공하여 시장 중심으로 소액보험을 활성화할 필요가 있음
- 보험회사는 기후 위기 대응 및 상생금융 실천 방안의 일환으로 소액보험상품을 제공할 필요가 있으며, 이때 저렴한 보험료로 보장을 제공할 수 있는 지수보험 형태의 상품 개발을 고려해 볼 수 있음
 - 지수형 보험은 기후변화로 인한 재난 상황에서 빠른 보험금 지급을 통해 신속한 대응이 가능하게 할 뿐만 아니라, 저렴한 보험료로 보장 혜택을 제공함으로써 저소득층의 보험 가입 장벽을 낮출 수 있음
- 한편, 국내 보험회사는 개발도상국의 보장 공백을 해소하면서 동시에 해외시장 진출의 발판을 마련하기 위하여 개발도상국의 저소득 취약계층에게 소액보험 상품을 제공하는 방안을 고민해 볼 수 있음
 - 영국 기반의 소액보험 전문 보험회사 Blue Marble은 인도에서 자영업 여성 협회, 지역 보험회사인 ICICI Lombard와 협력하여 비공식 경제⁴⁾ 여성 근로자를 대상으로 폭염 시 임금 손실을 보상하는 소액보험 상품을 시범적으로 운영하고 있음(Blue Marble, “Innovating to Protect Vulnerable Women Workers From Extreme Heat”)
 - 또한 Blue Marble은 Nestlé Nespresso와 업무 파트너십을 맺고 콜롬비아 칼다스의 커피 농부들에게 위성 데이터를 기반으로 하는 지수형 보험상품을 제공하고 있음

○ 보험회사는 기후변화에 대한 고객의 회복력을 높이기 위해 다양한 부가서비스를 제공하고 위험 감소 노력에 따른 보험료 할인 혜택을 부여하는 등 혁신적인 상품 개발을 통해 새로운 시장 기회를 얻을 수 있음

- 보험회사는 기후변화에 따른 건강 위험에 취약한 소외 계층을 위한 건강 상담·실천 프로그램을 개발하고, 헬스케어 관련 물품의 도소매 판매·중개·배송, 건강기기 업체 등에 투자할 수 있음
 - 2021년 보험업법 시행령 개정으로 보험회사와 자회사가 영위할 수 있는 헬스케어 관련 업무가 확대되었음(금융위원회 보도자료(2022. 8. 23), “금융규제혁신 ① 금융회사의 플랫폼 업무 활성화 및 온라인 플랫폼 금융상품 중개업 시범운영 ② 금융규제 샌드박스 내실화 추진”)
- 보험회사는 낙후된 지역에 거주하거나 의료서비스 접근성이 떨어지는 취약계층을 대상으로 디지털 의료,

4) 비공식 경제(Informal Economy)는 정부에서 과세하지 않고 모니터링하지 않는 경제의 일부로, 개발도상국 경제의 상당 부분을 차지하며 가난한 사람들에게 중요한 경제적 기회를 제공하고 있음. 인도의 비공식 경제에서 여성들은 매우 더운 환경에서 장시간 노동함에 따라 폭염에 불균형적으로 큰 영향을 받고 있음

처방약 배달 서비스 제공 방안을 검토해 볼 수 있음

- 미국의 건강보험회사는 우편 기반 약국(Mail-order Pharmacy)⁵⁾에 투자 또는 협업함으로써 추가적인 수익을 얻고 있음
- 보험회사는 위험 감소 노력을 한 소비자에게 보험료 할인을 제공함으로써 소비자의 건강 증진을 유도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보험료 부담을 느끼는 취약계층에 대한 건강보험의 소구력을 높일 수 있음
- 글로벌 보험회사 Generali는 개인의 위험 감소 노력 및 친환경 행동(Green Behaviours)을 촉진하기 위해 교육이 필요함을 강조하고, 고객의 노력에 대한 인센티브 제공 방안을 고민하고 있다고 밝힘(The Geneva Association 2024)

〈표 III-1〉 건강 형평성 제고를 위한 정책·경영과제

과제		내용
정책과제	기후 관련 보건 정책 마련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기후 및 보건 전문가 육성을 통해 기후변화에 대처하는 장기적 역량 구축 • 건강 형평성이 반영된 지역사회 공중보건 성과 지표 개발
	취약계층 생활기반시설 개선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열악한 주거 환경에 있는 취약계층을 위한 무더위쉼터 마련 • 독거노인 등 폭염 취약계층에 대한 모니터링 및 돌봄서비스 지원
	기후변화 저감 노력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기후 위험 감축 산업 분야에 정책금융 지원 • 화석 연료 산업에서 녹색 일자리로 노동자의 직업 전환 유도
경영과제	맞춤형 보험 및 건강 증진 프로그램 제공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기후 위험에 취약한 특정 직업군을 대상으로 맞춤형 보험상품 제공 • 건강 증진 프로그램을 활용하여 건강 관리 교육 및 기후 재난 발생 시 건강 위험 알림 제공
	소액보험 제공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기후 위험 대비에 취약한 저소득층에게 소액보험(지수형 보험 등) 제공 • 개발도상국에 소액보험을 제공함으로써 해외시장 진출을 위한 발판 마련
	혁신적 보험상품 개발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고객의 전체 건강 가치사슬에서 혁신적 서비스 제공을 통해 수익 흐름 다양화 • 위험 감소 노력을 한 소비자에게 보험료 할인 혜택 제공

5) 우편 기반 약국(Mail-order Pharmacy)은 처방약을 우편으로 배달할 수 있는 허가를 받은 인증된 미국 약국임

참고문헌

- 기상청(2023), 『지역 기후변화 전망보고서 개정판』
- 김기태(2022), 「한국과 유럽 8개국의 가구 의료비 지출 부담」, 『보건복지포럼』, 제309호, pp. 18~30
- 김도영(2012), 「소득수준별 보건의료서비스 이용 형평성 변화 분석」, 『사회과학연구』, 23(3), pp. 105~125
- 김동진·이나경·현유림·강희원·김동하·김수경·박나영·정연(2022), 『국민의 건강수준 제고를 위한 건강형평성 모니터링 및 사업 개발』, 보건사회연구원
- 김수란·정태성(2023), 『폭염재난관리 환경변화를 고려한 상황판단 지원 체계 개선』, 국립재난안전연구원
- 석승훈·홍지민(2022), 『미소보험(Microinsurance)의 경제학적 고찰』, 연구보고서, 보험연구원
- 에어코리아, 『대기환경연보 2022』
- 윤강재(2022), 『미래 공중보건 위기 대응을 위한 지역보건체계 재구조화 방안: 보건소를 중심으로』, 한국보건사회연구원
- 이완형·윤진하·강성규·최원준·함승헌·김의진·이준형·이은이·이미정(2019), 『기후변화에 따른 옥외작업자 건강보호 종합대책 마련 연구』, 산업안전보건공단
- 이은환(2022), 『코로나19 감염병 재난의 건강불평등 연구』, 경기연구원
- 정지훈·김인겸·이대근·신진호·김백조(2014), 「우리나라 지역별 고온 극한 현상에 의한 사망 취약도 비교」, 『대한지리학회지』, 48(2), pp. 245~263
- 통계청(2015). 가계동향조사
- Blue Marble, “Innovating to Protect Vulnerable Women Workers From Extreme Heat”
- Fantini, Blanchard, Rath, Removille, Schwemer and Mayeres(2024), “How Insurers Can Take On the Climate-Driven Health Crisis”, Boston Consulting Group
- Environmental Protection Agency(2021. 9. 2), “EPA Report Shows Disproportionate Impacts of Climate Change on Socially Vulnerable Populations in the United States”(https://www.e

pa.gov/newsreleases/epa-report-shows-disproportionate-impacts-climate-change-socially-vulnerable)

Hill, Ndugga, and Artiga(2023), “Key Data on Health and Health Care by Race and Ethnicity”, Kaiser Family Foundation

The Geneva Association(2024), “Climate Change: What Does the Future Hold for Health and Life Insurance?”

The White House(<https://www.whitehouse.gov/>)

_____ (2023. 7. 11), “FACT SHEET: Biden-^[W]Harris Administration Takes Action to Protect Communities from Extreme Heat Fueled by the Climate Crisis” (<https://www.whitehouse.gov/briefing-room/statements-releases/2023/07/11/fact-sheet-biden-harris-administration-takes-action-to-protect-communities-from-extreme-heat-fueled-by-the-climate-crisis/>)

WHO, “Environment, Climate Change and Health”(<https://www.who.int/teams/environment-climate-change-and-health/healthy-urban-environments/urban-planning/health-equity>)

_____, “Health Equity”(https://www.who.int/health-topics/health-equity#tab=tab_1)

_____(2023. 12. 1), “Human rights”(<https://www.who.int/news-room/fact-sheets/detail/human-rights-and-health>)

Wu, Nethery, Sabath, Braun and Dominici(2020), “Air pollution and COVID-19 mortality in the United States: Strengths and limitations of an ecological regression analysis”, Science Advances, 6, eabd 4049

저자약력

김경선 서울대학교 경영학 박사 / 연구위원
E-mail : sunnykim@kiri.or.kr

홍보배 Claremont Graduate University Economics 석사 / 연구원
E-mail : bobae.hong@kiri.or.kr

CEO Report 2024-02호

기후변화와 건강 형평성

발행일 2024년 5월

발행인 안철경

발행처 보험연구원

주소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국제금융로 6길 38 화재보험협회빌딩

인쇄소 경성문화사

ISBN

